

해외진출 통해 유니콘사 육성... 모태펀드로 '글로벌 공략'

취임 1년 유영환 한국벤처투자 대표
세계시장 진출 경험·역량 '자신'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 등 박차



유영환 한국벤처투자 대표.

“우리 경쟁력은 이미 최고 수준이다.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쌓았다.”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가 '글로벌 공략'을 위한 준비를 단단히 갖췄다.

해외투자 유치,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유니콘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미래 전략산업 투자 확대,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다.

유영환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광석화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1년이 빠르게 지나 갔다”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당시 추진했던 120대 국정과제에 발맞

춰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와 기관 효율화를 뿌리내리는 데 집중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엔지니어로서의 경험이 벤처캐피탈(VC) 분야와 융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

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올해 한국벤처투자의 4대 핵심 미션으로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 ▲민간모펀드 활성화 ▲벤처투자생태계 글로벌화 ▲ESG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의 경우 그동안의 운용 경험을 토대로 세계적인 벤처투자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말까지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글로벌 펀드는 약 8조원 규모였다.

유 대표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펀드에 6287억원을 출자해 총 59개, 약 8조 9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했다”면서 “이를 통해 1조원이 넘는 투자가 한국기업에 투자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안에 유럽사무소를 추가로 열고, 기존의 미국사무소는 법인화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모태펀드도 순항하고 있다.

모태펀드 민간자금 유치 승수효과는 2019년 1.58배에서 2022년 1.98배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모태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도 꾸준히 늘고 있다. 41개 유니콘기업 가운데 37곳이 모태펀드(5785억원)로부터 투자를 받아 추가 성장했다.

유 대표는 “모태펀드가 민간 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이 돼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도왔고, 유니콘기업 매출 비율도 90.2%에 달하는 등 기업 성장 지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초격차펀드’, ‘벤처세컨더리사모펀드’도 새로 만들었다. 초격차펀드는 반도체,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10대 분야와 딥테크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 벤처세컨더리사모펀드는 사모시장과 연계해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의

출자자 지분 인수 또는 벤처·스타트업 구주를 인수하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혁신 벤처펀드’ 역시 충청·부산, 동남권(울산·경남), 대구·제주·광주, 전북·강원 등 5개 권역에서 3155억원 규모의 지역혁신모펀드와 3421억원의 자펀드 조성도 끝낸 상태다.

유 대표는 “ESG 환경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벤처투자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올해 ESG경영팀을 새로 만들고 ESG경영위원회도 꾸렸다”고 전했다.

이외에 한국벤처투자는 데이터와 서비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DX)을 통한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VC 투자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벤처투자 종합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SKT, 실내·외 유동인구 AI분석 기술 개발

‘리트머스’ 실내 측위 기술 결합
와이파이 등 전파 정보 통해
지역 내 전체 인구 추정 기술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기술로 특정 건물 안 유동인구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SK텔레콤은 자사 AI 위치 분석 플랫폼 ‘리트머스’에 실내 측위 기술을 결합한 AI유동인구 기술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유동인구 분석 기술은 특정 지역 내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해외 이동 인구나 실내 체류 인구 구분

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SK텔레콤은 기지국,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전파 정보를 통해 실내·외 인구 분석이 가능한 딥 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리트머스에 적용해 실내 체류 인구와 실외 이동량 분석을 가능케 했다.

리트머스로 분석된 실내외 유동인구 외에 인구, 토지, 지역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전체 인구 추정하는 전수화 기술을 적용하며 측정 데이터 신뢰도를 높였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AI유동인구 기술 측정

데이터가 실내 체류 인구를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공공 인프라, 교통, 재난, 환경 등에 관련된 수요와 사업 계획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리트머스 서비스의 일환으로 AI유동인구 기술과 데이터를 고객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AI 유동인구 기술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상업 건물 일부에 적용했으며 향후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식 뉴스를 통해 AI유동인구로 분석한 데이터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부전자전’ 선친 뜻 이어 소외계층 백미 기부

안성호 에이스경암 신임 이사장
성남 취약계층에 1.4억 상당 전달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유지를 받들어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직접 나섰다.

아버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아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작고한 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과 선친에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에이스침대 안성호 대표(사진)의 이야기다.

19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에이스침대 대표 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신임 이사장인 안성호 이사장이 추석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 취약계층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했다. 안성호 이사장이 성남시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기탁한 백미는 10kg 짜리 5900포다. 안 이사장은 이를 시작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선친의 뜻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안 이사장은 고 안유수 전 이사장의 경영철학이기도 했던 ‘기업의 이윤을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은 고 안유수 전 이사장이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설립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시적 지원이 아닌 꾸준한 기부를 이어가는 것을 방침으로 삼고 25년째 설과 추석 명절에 쌀을 기증해 오고 있다.

에이스경암이 1999년부터 이번 추석까지 지역 사회에 기부한 쌀은 총 14만 2460포, 무게로는 1424톤(t)에 달하는 양이다. 금액으로 34억원 어치다.

안 이사장은 선친의 뒤를 이어 최근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쌀 기탁을 시작으로 지난 25년간 이어진 아버지의 선행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기아
시각장애인 돕는
‘내비 솔루션’ 개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글로벌 교통약자의 도보 이동 시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현대차와 기아는 싱가포르에서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도보 이동을 돕는 내비게이션 솔루션 실증사업 ‘유니버설 모빌리티 2.0’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유니버설 모빌리티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미래 도시 환경과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현대차·기아가 진행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다.

유니버설 모빌리티 2.0은 현대차·기아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 카헤일링(차량호출) 서비스 실증사업 ‘인에이블엘에이’(EnableLA)의 후속 프로젝트로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도보 이동 편의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양성운 기자 ysw@

SK브로드밴드, 지역채널 뉴스에 AI 적용

심재호 기자 AI휴먼으로 구현



AI로 구현된 ‘이시각 보도국’ 프로그램 속 AI 심재호 기자의 모습.

SK브로드밴드가 인공지능(AI)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뉴스 프로그램 내 자료화면 등에 생성형 AI를 활용해 AI가 제작한 이미지도 활용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지역채널 뉴스에 AI 기술을 적용해 프로그램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AI 기술을 이용해 자사 케이블 지역채널에 방영 중인 ‘이시각 보도국’의 진행자인 심재호 기자를 AI휴먼으로 구현해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다.

심재호 기자는 30년 넘게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곧 정년퇴임을 앞둔 베테랑 기자다. 케이블방송 언론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심재호 기자는 “AI 기술로 열정과 패기가 충만했던 젊은 시절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정년퇴임 이후에도 ‘AI심재호’로 지역민과 계

속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SK브로드밴드는 자사 지역채널에 방영 중인 뉴스 프로그램 내 자료 화면에 이미지 생성형 AI 기술을 연내에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와 ‘정책토론’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토론을 펼치고 있는 가상의 인물을 포함한 이미지를 30초 이내로 생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직관적인 정보 전달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구남영 기자

LG엔솔, 글로벌 그린본드 10억달러 발행

3년 만기 4억달러, 5년 만기 6억달러

LG에너지솔루션이 출범 이후 첫 글로벌본드(그린) 10억 달러 발행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19일 LG에너지솔루션이 발표한 글로벌본드의 규모는 ▲3년 만기 4억 달러 ▲5년 만기 6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다.

발행금리는 미국 3년, 5년 국채금리 대비 각각 +100bp, +130bp(1bp=0.01%p)로 결정됐다. 이는 최초제시금리(Initial Price Guidance) 대비 각 40bp씩 낮아진 수준이다. 최초제시금리는 투자자들의 투자 주문 접수 개시와 함께 발행사가 공표하는 예상 발행 스프레드를 의미한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LG에너지솔루션의 그린본드 사용 및 관리 계획 등

을 담은 녹색금융 프레임워크는 무디스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QS1(탁월)’을 획득하며 체계화된 ESG경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 신용등급평가사 무디스, S&P는 LG에너지솔루션의 견고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 내 지위와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채권 신용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인 ‘Baa1/BBB+’로 책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글로벌본드 발행에는 3년 114개, 5년 186개 기관의 투자자 참여했고, 총 공모액의 5배에 이르는 주문이 접수됐다. 글로벌 배터리 산업 리더인 LG에너지솔루션의 적극적인 투자 계획과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 등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허정윤 기자 zelkova@